

# 조선 500년 유교문명의 야심찬 주춧돌

## 삼봉 정도전의 '삼봉집' 목판



삼봉 정도전을 제향하는 문헌사.



삼봉 정도전(1342-1398)은 동아시아 2000여년의 유학사에서 유일하게 유교국가로 세운 유학자이다. 유학의 비조 공자도, 공자의 맥을 이은 맹자도, 신유학의 태두 주자도, 그 누구도 유교국가를 건설하지는 못했다. 유교국가 조선 건국의 기획자이자 유교문명의 설계사 삼봉 정도전의 위패를 봉안한 문헌사(文憲祠)와 삼봉기념관은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은산리에 위치한다. 삼봉기념관은 정조 15년(1791)에 제작한 '삼봉집' 목판이 현재 보존되고 있다. 목판은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32호로 지정(1988.5.7)된 지 30여년이 되었다. 글자를 새기는 각자(刻字) 양식은 양면에 양각(陽刻)이고 반엽(半葉, 반엽은 한 면) 10행으로 1행이 20자로 새겨져 있다. 목판의 재질은 배나무이고 목판의 규격은 길이 56cm, 폭 21cm, 두께 3.6cm이다.



삼봉집 목판.

'삼봉집'은 1385년(우왕 11년)에 양촌 권근(1352-1409)의 '양촌집'에 '삼봉 정도전의 문집의 서'라는 서문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때 처음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 실체는 전하지 않는다. 태조 6년(1397)에 아들 정진(1361-1427)이 시문 약간을 모아 2권으로 간행한 것이 최초로 알려져 있다. 초간본의 탄생이다. 정도전은 초간본이 간행된 직후 1388년 이방원에 의해 죽임을 당하여 조선 건국의 일등공신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정치사상사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저자의 저술은 말할 것도 없다. 이후 60여년이 흐른 세조 10년(1464) 세조는 삼봉의 증손자 정문형(1427-1501)을 경상도관찰사로 임명한다. 정문형은 이듬해 7월 초간본에 실린 시문 이외의 '경제문감', '조선경국전' 등 여러 저술까지 7권 4책으로 엮어서 안동에서 '삼봉선생집'을 간행한다. 이것이 중간본이다. 성종 18년(1487)에는 '경제문감별집' 등을 모아 120여장의 목판에 8권 8책으로 속간한다. 중간속간본이라 할 수 있다. 그후 300여년이 지난 정조 15년(1791) 정도전이 정치적으로 아직 복원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정조는 규장각에 삼봉집을 간행할 것을 지시한다. 이로써 '삼봉집'은 다시 발간되고 288판으로 제작되어 현재 삼봉기념관 목판고에 보존되기에 이른다. 다만 288판 중 20여개의 소실된 목판을 복원하는 등의 우려곡절을 겪고서야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었다.

1865(고종2)년에는 경복궁의 전각들이 차례로 완성되자 고종은 조선 건국을 설계하고 수도 한양 건설을 주도했던 정도전의 업적을 '유학도 으뜸 공로도 으뜸'(儒宗功第一 公宗功第一)이라 높이 평가하여 특별히 훈봉(勳封)을 회복시키고 문헌(文憲)이라는 시호(諡號)를 내린다. 정도전이 죽은 지 480여년만의 일이었다. 삼봉 정도전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다.

'삼봉집'에는 정도전의 정치철학과 국가경영전략이 녹아 있다. 보통 유학자들의 문집과는 다소 다르다. '삼봉집'은 허허벌판의 백지에 새로운 유교국가의 꿈을 그린다. 백성이 보이고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문명의 길을 제시한다. 정신문화의 축의 전환을 모색한다. 때문에 '삼봉집'은 새로운 국가를 개창하고 임금이 불인인지정(不忍人之政)의 왕도정치를 해야 하는 경복궁(景福宮)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종묘, 오른쪽에는 사직단을 세운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왜 경복궁을 경복궁이라고 이름 붙여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까지도 자세하다. 시경(詩經) 주아(周雅)편에 '군자께서 만년 장수하시고 큰 복(福)을 받으시기를'이라는 시구를 인용하여 경복궁이라고 새 궁전의 이름을 짓고 있다. 왕의 침전으로 지

붕에 용마루가 없는 강녕전(康寧殿)은 서경(書經) 홍범편에서 오복 중 강녕을 당호로 삼았다. 강녕을 뽑아 들면 장수(壽), 복(福), 유호덕(攸好德) 고종명(考終命)은 다 따라오기 때문이다. '천하의 이치는 생각하면 얻고 생각하지 않으면 잃으니' 반드시 생각하고 정치하려는 뜻으로 왕의 집무실을 사정전(思政殿)이라고 이름한다. 또한 '천하의 일은 부지런하면 다스려지고 게으르면 황폐되는 것은 필연의 이치이며, 어진이를 구하는데 부지런 하라(勤於求賢)'고 하여 근정전(勤政殿)이라고 명명한다. 정도전은 날마다 일하는 일상의 건물, 드나드는 문, 잡자는 침전 등의 공간에 철학을 부여했다. 공자는 일찍이 논어 자로편에서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하지 못하고, 말이 순하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처럼 정도전은 왜 여기서 잠을 자고 왜 이곳에서 근무하는지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해야 하고 어떻게 행정을 해야 하는지를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건물만 봐도 깨달도록 작명한다. 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공동체가 요구하는 그 철학과 사상을 실천하도록 이름을 명명한다. 하나 하나의 건물들의 집합체에 불과한 물리적 공간에 철학을 부여함으로써 유교국가를 이끌어가는 심장부로 재탄생시킨다. 인(仁)을 흥하게 하는 동대문(興仁之門), 예(禮)를 숭상하는 남대문(崇禮門) 등 의예지(義禮智)를 나타내는 사대문 역시 마찬가지다. 때문에 한양은 유교국가의 철학을 물리적으로 구축한 도시라고 할 수 있다. 몇 해 전 행정수도 세종시를 건설하여 현재 40여개의 중앙행정기관 등이 세종시로 이전하였다. 그러나 그 기획에는 600여 년 전 정도전이 경복궁과 한양에 국가의 비전과 통치철학을 부여했던 것과 같은 문명적 비전은 보이지 않는다. 그저 신축건물과 부동산만 있을 뿐이다. 철학이 없다.

정도전은 물리적인 건축물에 이름을 부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1394년 태조의 명을 받고 주(周) 육관(六官)의 이름을 모방하여 조선의 법전으로 '조선경국전'을 지어 올린다. '조선경국전'은 국가경영의 철학을 제시한다. 그 첫 번째는 보위를 바꾸는 일이다. (正實) 그 보배로운 위(位)를 지키는 핵심은 인(仁)이다. 백성이란 나라의 근본이며 임금의 하늘이어서 임금은 인(仁)의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들은 서로 모여 살게 되면 음식과 의복에 대한

물욕이 밖에서 공격하고 남녀에 대한 정욕은 안에서 공격하여 동류일 경우에는 서로 다투게 되고 힘이 대등할 경우에는 싸우게 되어 서로 죽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통치자는 법(法)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서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평화롭게 해 주어야만 민생이 편안해지는 것이다." 조선의 새로운 군주는 인(仁)과 법(法)으로 국가를 경영할 것을 제시한 것이다. 이 '조선경국전'은 '경국대전'의 모태가 되었으나 '경국대전'에는 '조선경국전'이 제시했던 정치철학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저 유교관료제의 형식만 남아 있다.

또한 고려말은 가난한 사람은 송곳 꽃을 땅도 없었다. 여기에 혹독한 관리들의 수탈에도 시달려야만 했다. 백성은 더욱 곤궁해지고 나라는 더욱 가난해졌다. 정도전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이론적 작업으로 고려 지배체제의 사상적 지주였던 불교의 사회적 폐단과 사상적 비합리성을 '불씨잡편'을 통해 비판한다. 유교문명로의 전환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정도전은 '경제문감 별집'에서 군주의 치도(治道)를 정리하기 위해 최고의 성군이라고 일컫는 요순에서부터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고려까지 139명의 군주들을 분석한다. 결론은 이렇다. 왕조별로 이렇게 많은 군주들이 등장해서 정치를 했는데 탁월한 군주는 요임금과 순임금 정도이다.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군주들은 보통군주들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보통군주들이다. 만약 보통군주들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실패라도 한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백성들이 떠안게 된다. 그러니 과거시험을 통해 관리로 선발되어 국가경영에 대해 이미 검증된 재상들이 그 경륜을 살려 군주와 함께 정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정도전의 생각이었다. 때문에 보통군주들의 시대에 재상과 간관 등은 어떠한가 하며 백성의 근본으로서 지방 수령들은 어떠한가 하는지를 '경제문감'을 지어 밝힌다. 그 임금을 요순같이, 그 백성을 요순 때의 백성과 같이 하고자 함이었다.

'삼봉집' 목판은 정도전의 정신적 생명이다. 정치적 사유의 집적물이다. 조선이 탑재되어 있는 조선 500년의 주춧돌이다. 유교문명의 꿈이 내장된 집이다. 정도전의 문명 기획은 지금도 한국인의 정신문화 속에 살아 숨 쉬고 있다. 역사는 살아

편집국장 권행완

## 부산중친회 단체별 유적 답사 소식



등산화-원계서원



천동화-운곡서원

부산중친회 등산회, 천동회, 부녀회 등 산하 단체에서는 단풍이 곱게 물드는 철을 맞아 앞 다투어 유적 답사를 겸한 관광으로 회원 친목과 단합을 다지고 있다.

부산 등산회(회장 권영환)는 지난 9월 29일 오후 산청군 신등면 단거리 113번지에 위치한 원계서원을 찾았다. 이곳은 성품이 강직하고 학문이 뛰어난 동계공 선생을 주향(主享)으로 지방 유림에서 숭봉(崇奉)하는 서원이다. 먼저 경배를 올린 후 뒤 설명에 나선 관리인은 "권문의 2세 동계공(휘 도봉) 선조는 어려서부터 학문이 출중하여 류성룡 같은 명사를 탄복케 하였고 벼슬에 나가서도 충직하여 왕에게 직언을 서슴지 않던 분으로 대시간을 역임하신 분"이라며 사후에는 이조판서에 홍문관, 예문관의 대제학으로 증직되고 충강이란 시호도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오전에는 회원 20명이 등산을 겸한 밤 쏘기 행사로 수석부회장이 '성용' 축전의 밤 산을 찾아 알밤을 주우며 재미난 시간을 가졌다. 일정을 마치고 각자 한 포대씩 짙은 밤으로 돌아오는 차안은 앓을 자리조차 부족할 만큼 비좁았으나 참가자 모두가 어릴 적 추억을 되새기며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고 좋아했다.

또, 지난 10월 9일에는 부산중친회의 원로가 주축인 천동회(회장 권영환)에서 24명의 회원이 태사공 시조님을 모신 운곡



부녀회-주왕산 관광

서원을 찾아 참배하고 인근 경주 일원의 한옥 마을 양동과 고적 석굴암, 경주동궁과 월지 등을 관람하였다. 특히 운곡서원은 서원 창건을 주도하신 31세 갈산공(韓宗洛)의 7세손 '용근' 자문위원이 함께하여 세세한 내력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영훈' 회장이 버스 대절비를 부담하고 여러 족친이 성금을 찬조하여 훈화함을 더하였다.

한편, 부산 부녀회(회장 권영환)도 지난 10월 8일 회원 25명이 청송 주왕산 국립공원으로 이른 단풍놀이에서 나서, 하루나마 가서 노동과 일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모두 신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앞으로도 중친회의 단체나 개인별로 단풍 관광에 나서는 이들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중친회(회장 권영환)에서는 이들에게 가급적 선조 유적을 함께 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주기를 권하고 있다.

(부산 사무국장 권재영)

## 안동능우회 회원단합과 건강유지 위해 가을 나들이

안동능우회(회장 권기원)는 회원단합과 건강유지를 위하여 경북도산림과학박물관, 선성수상길(宣城水上路), 한국국학진흥원을 경유하는 가을 나들이를 하였다.

10월 9일 오전 11시 능우회원 20여 명은 안동권씨안동중친회관 앞에서 승용차 5대에 나누어 타고 경북도산림과학박물관을 향하였다. 박물관에 도착하여 직원 박영숙씨의 안내를 받아 제1전시실 산림의 역사와 자원, 2전시실 경북의 산림, 3전시실 나무의 마당, 4전시실 생명과 문화의 숲 등의 설명을 들으며 관람하였다. 관람이 끝난 후 3층에 있는 4D입체영상실에 들어가서 6분짜리 영화 1편을 감상하고 박물관 정문 입구에 있는 상징조형물 앞에서 단체로 기념촬영을 하였다. 회원들은 산림박물관 부근에 있는 '도산대개' 식당에서 열린한 닭볶음탕으로 점심식사를 했다. 식사가 끝나자 회원들은 낙동강 상류에 설치되어 있는 왕복 길이 4km의 데크길의 부교(浮橋)를 걸었다. 사방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출렁이는 낙동강 맑은물을 보면서 데크길을 걸으니 마음까지 시원한 느낌을 받았다. 이수상길은 안동호(安東湖)의 수위변동에



선성수상길 부교에서 단체 기념촬영

상관없이 물위의 데크길을 걸을 수 있는 부교로 널리 알려져 있어서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유명한 곳이다. 부교 중간쯤에는 안동댐 건설로 인해 물에 잠겨버린 안동시 예안면의 추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예안초등학교의 옛 건물사건 등을 전시하고 조형물로 풍금(風琴)을 만들어 설치해 놓았다. 선성수상길을 왕복한 회원들은 마지막 코스인 한국국학진흥원으로 이동, 권영길 연수원장의 안내를 받아 내부부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안동능우회는 안동능곡회원의 나이가 만 65세가 되면 능우회에 가입하는데 현재 능우회원은 23명이 있으며 내년에는 능곡회원 6명이 새로 능우회에 입회한다. (보도부장 권영길)

## 안동권씨 종보 구독 확장 협조 안내

안동권씨 종보는 안동권문의 전통이자 역사입니다.

안동권씨 종보는 100만족친의 소통매체입니다.

지역중친회를 중심으로

1인당 10명 이상 구독자를 확보하여 더 크게 화합합시다.

안동권씨 대종회 회장 권해옥

